

음악과 정체성

음악의 이해 제11강

-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 어떤 종류의 정체성이 있는가?
-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음악은 그 정체성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가?
- 음악과 정체성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 정체성은 나(혹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 인종, 민족, 국가, 젠더, 종교, 지역, 언어, 직업, 세대 등
- 한 개인은 하나의 정체성 뿐 아니라 **복수의 정체성을 가짐**

하나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며,
정체성에 따라 더 복잡하기도 함.

한국 내에서는 국가 정체성 낮지만,
해외에 가면 국가 정체성 ↑

의도치 않게 집단에 소속되어 정체성이 생길 수도 있음.

→ 피부색, 국적, 언어, 성별.

또는 선택 하기도.

→ 직업, 성향 등.

음악은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 구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

- 음악은 개인 혹은 집단 정체성의 지표
- 음악은 민족, 국가, 인종, 계급, 종교, 젠더 등 정체성 구성의 중요한 매개
- 음악의 가사, 선율, 음성의 구색, 악기사용, 음악연행 시 몸의 표현, 외모 꾸미기 등 정체성 표현의 구체적 방식

중국의 전통.

→ 남녀 크로 강제시킴.

내가 누워있는 도를 이용해 표현.

또는 신체강제, 춤, 음악, 꾸밈, 문신 등 다양한 방법.

크게 5가지.

- 음악과 국가/민족 정체성
 - 풍물/사물놀이 - 국가정체성
- 음악과 인종 정체성
 - 레게 - 아프리카인 계열
 - 방그라 - 인도인 계열
- 음악과 젠더 정체성
 - 라이엇 걸 - 여성중심주의
- 음악과 세대 정체성
 - 1970년대 포크 - 청년세대
 -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 신세대
- 음악과 계층 정체성
 - 자메이카 댄스홀 - 하위계층

70년대 등장. 당시 파격적.

80년대 등되면서 다양한 국제 행사
당파되고 있던 시기. 당시 사물놀이를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수월.

및 타악기의 활용이었다가 이러한
요소를 한국을 알리기에 활용.



정체성에 반영되었음.

아프리카 인에 대한
정체성 확립

국가정체성.

일본 다이코^{다코}

- 민속문화-신토, 불교와 연관되어 연행

-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

- 해외공연, 민족성 발현 - 초남성성

- 북미에서 아시아 여성에게 인기

-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도전

본기
종교와 관련

패전 이후 국력 쇠퇴 (여성화)

약화된 민족성 극복을 위해

강력한 남성성

연행 할 때 큰 팔 동작 등이 가운에 가진 여성향
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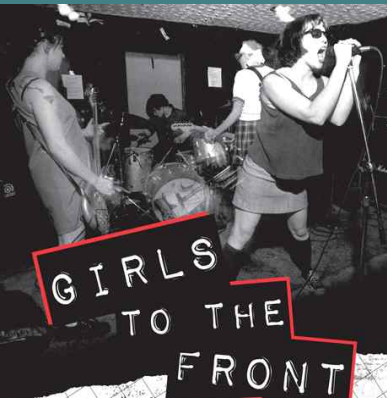


펑크 : 70년대 미국, 영국 중심으로 형성.
각 장르는 단순한 코트, 단순한 악기

보컬이 내세우는 스타일. 기독권 저항가사.
음반 제작을 스스로하는 방식.
의외적으로 공격성, 반항적.

Riot Grrrl (라이엇 걸)

- 1990년대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여성주의 하드코어 펑크 운동
 - 펑크가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문화였다면,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관심사항을 표현하며 여성들만의 공간을 추구함
그렇다고 남성은 배제하진 않음.
- 가정폭력, 강간, 가부장제, 여성의 힘에 대해 다룸
- 종종 남성을 배제하는 문화 - 레즈비어니즘으로 인식
- DIY, 미술, 팬진, 정치적 발언/행동을 동반



They're urgent, they're angry, they're

The Riot Grrrls



**RIOT
DON'T**

fem-
inism rules okay

DIET

SMASH Patriarchy'

**Revolution,
Girl Style**



REVOLUTION
THERES REVOLUTIONS WHEN SHE HAS
S COMING IN HER KISS I TAST
ON REBEL GIRL REBEL
HE REBEL GIRL I KNOW
I WANT TO TRY ON YOUR G

음악과 세대

- 70년대 포크 음악 – 청년세대

반문화적 성격은 열대야보다
유흥적 성격.

- 전후에 태어나 10대 시절 미국문화의 영향 받음
-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저항

-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 신세대

X 세대

록인 음악, 락, 힙 등이 뒤섞인 파격적 음악.

- 개인적, 탈정치적, 소비지향적
- 1990년대 초반 대학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 혹은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감수성을 지닌 20대
-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로 경제적으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

- ‘싸구려커피’ – 88만원 세대

가난한 20대, 해학적 표현.

- 2000년 말 등장, 20대의 평균 소득
- 대학과 대학생의 양적 증가에도 지속된 경제불황과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채로 성인이 된 세대

자메이카 댄스홀

- 자메이카 댄스홀

-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 빈민가에서 탄생한 자메이카의 대중음악
- 가사가 빈민가 생활, 폭력, 물질주의, 마약, 노골적인 섹슈얼리티, 동성애에 대한 반감 등의 이슈를 다룸
- Bass와 타악리듬을 강조하여 비트감이 강함
- 1990년대 초 호모포비아적 가사를 담은 자메이카 댄스홀이 유럽과 북미권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더 불어 서구권 동성애인권주의자들의 주목을 받게 됨.

자메이카 호모포비아

- 자메이카는 동성애혐오가 가장 심한 카리브해 영토로 인식되어 있음
 - 남성들의 성교 금지법
 - 보수적 기독교
 - 백인주인의 남성노예에 대한 남색이 굴욕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인식
- 많은 자메이카인들, 특히 하위계층의 흑인 남성들이 동성애를 유럽인의 지배와 식민주의의 잔재로 인식함
 -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반대하며, 댄스홀 음악을 향유하며 과장된 남성성을 표현 마초 등.
 - 과장된 남성성은 “식민주의 시절 남성들의 여성화”에 대한 저항하는 것

서구 동성애 인권운동

- 자메이카 댄스홀 음악이 호모포비아와 그와 관련된 폭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봄
 - 동성애자들을 “burning,” “shooting,” “killing”한다는 표현이 있음
- 영국 동성애 인권주의 운동가 Peter Tatchell
 - 많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자메이카인들이 동성애자 살인을 내포하는 가사가 호모포비아를 생성시키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극하는데 확실히 도움주고 있다고 주장.
 - 호모포비아 노래가 유명한 레게 스타에 의해 불려질 때,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감과 증오감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또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수용할 만한 것으로 믿게 만든다. → 이러한 살인 음악 가사는 호모포비아 증오와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Stop Murder Music 캠페인

- 1990년대 이후 호모포비아적 가사가 담긴 댄스홀 음악을 부르는 뮤지션들의 공연과 앨범에 대한 보이콧 운동
- 수백여 공연이 취소됨; 50억원 수입 손실
- 아이튠즈를 비롯하여 방송사와 유통사의 리스트에서 제외됨
- 결국 관여된 자메이카 뮤지션들의 기획자와 캠페인측이 협상하게 됨 (Reggae Compassionate Act 서약서)
더이상 혐오주의적 색인 가사 붙지 않음.



Buju Banton

Real Name: Mark Myrie

Date of Birth: 15 July 1973

Amnesty International statement, 19 August 2004. Issued by Susan Lee, Programme Director Americas, International Secretariat, AI London: "We can confirm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information from reput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concerning reports that Bujar Banton was involved in a homophobic attack. These reports take the form of statements that allege that on June 24 2004, six men were driven from their home and beaten by a group of armed men, and that the alleged assailants included Bujar Banton (Mark Anthony Mayle). The reports reported that this attack was apparently motivated by hatred of gay men. The victims alleged that bot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 the assailants had called the men 'battymen' (homosex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further aware that several of the alleged victims were interviewed by a Human Rights Watch researcher who was in Jamaica at the time.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received reports that several of the alleged victims made official reports to the Constant Spring police station on 25 June 2004."

Where to buy:

Boom Bye Bye

www.oxfordjournals.org/doi/10.1093/oxfordjournals/ehp.a001002

Boom Bye Bye

www.jstor.org/stable/4144444

Boom Bye Bye

www.amazon.co.uk/Free-Choice-A5145000011714

DANCEHALL DOSSIER

OUTRAGE!

Buju Banton

Buju Banton - Boom Bye Bye

Boom bye bye

Boom [as in gun sound] goodbye, goodbye

[as in we won't be seeing you again, you're dead]

Inna batty bwoy head

In a queer's head

Rude bwoy no promote no nasty man

Rude boys don't promote no queer men

Dem haffi dead

They have to die

Send fi di matic an

Send for the automatic [gun] and

Di Uzi instead

The Uzi instead

Shoot dem no come if we shot dem

Shoot them, don't come if we shoot them

[as in don't come to help them]

Guy come near we

If a man comes near me

Then his skin must peel

Then his skin must peel

(as in pour acid over him)

Burn him up bad like an old tyre wheel

Burn him up badly, like you would burn an old tyre wheel

QUICK FACTS

- Barton is being sought by the Jamaican police in connection with a gay-bashing attack in Kingston, Jamaica, on 24 June 2004.
- He performed Boom Bye Bye as recently as Sunday 8 August 2004 at the Smirnoff 96 festival in Negril, Jamaica.
- Boom Bye Bye incites the execution-style killing of gay and lesbian people, by shooting them in the head, pouring acid over them or setting them alight, and burning them like car tyr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ampaign

Web: <http://www.stopmurdermusic.org>

Email: info@stopmurdermusic.org

Telephone: +44 (0) 770 843 5917



- 서구의 자메이카 댄스홀에 대한 개입
 - 인종차별주의 혹은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난
 - 영국동성애인권주의자들이 비서구권의 동성애운동에 관여함으로써 영국주류언론으로부터 보다 주목을 받으며 운동에 대한 힘을 받게 됨. *이렇었다는 의견.*
- 정체성 충돌
 - 자메이카인들과 서양의 동성애자들이 거대한 권력구조-각각 서구지배와 이성애주의--에 저항하는 약자의 입장이지만, 자메이카 댄스홀이란 음악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한 개인은 복수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 음악은 개인 및 집단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강화/확립시키는데 관여한다.
- 같은 음악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 다이크)
- 음악이라는 영역은 다른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예- 자메이카 댄스홀)